

조선(비중확대)

현재까지 조선업체가 수주했다 알려진 물량만 42억 달러

- 올해 현재까지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주했다고 알려진 금액은 42억 달러가 넘습니다. 전년 수주물량의 21% 수준입니다.
- 현 추세로 진행된다면, 올해 수주물량은 YoY 4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국내사들의 목표치를 소폭 상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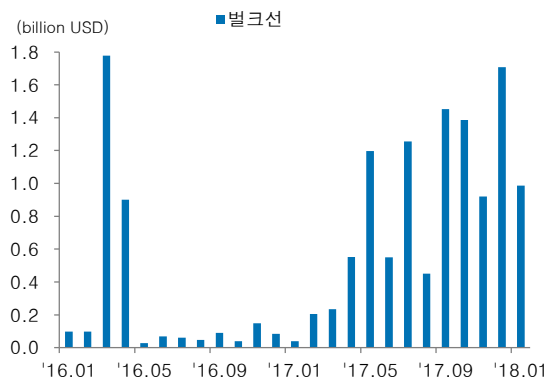
Facts & News

- 1월 주요상선 발주물량(계약완료)은 벌크 9.9억 달러, 컨테이너 11.6억 달러, 탱커 3.2억 달러, 가스선 10.1억 달러
- 1월까지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최종 계약 체결한 금액은 8.2억 달러이며, 올해 현재까지 알려진 수주 규모는 42억 달러.

Com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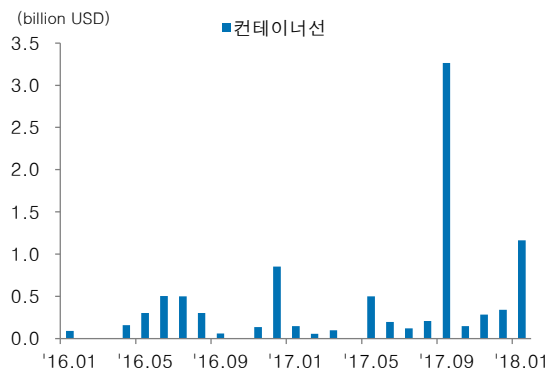
- 예측대로 벌크/가스선/컨테이너 중심 발주가 확인되고 있으며, 중국 LNG 수입 급증이 가스선 발주 기대심리를 조성함

그림1. 월간 글로벌 벌크선 발주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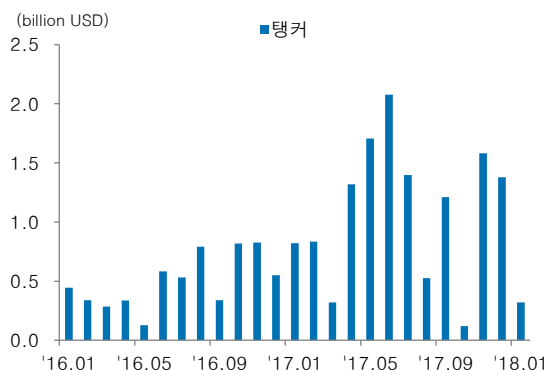
자료: 케이프투자증권, Clarkson Research

그림2. 월간 글로벌 컨테이너선 발주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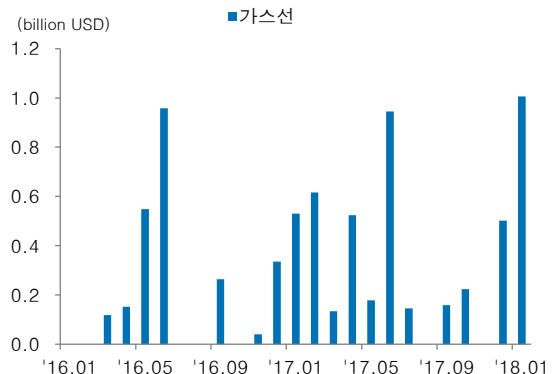
자료: 케이프투자증권, Clarkson Research

그림3. 월간 글로벌 탱커선 발주물량



자료: 케이프투자증권, Clarkson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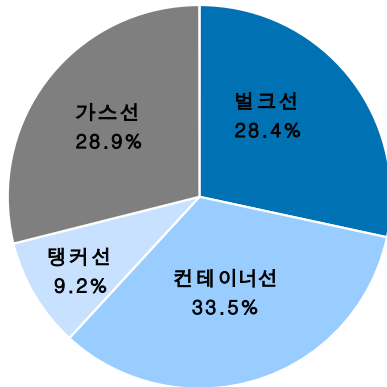
그림4. 월간 글로벌 가스선 발주물량



자료: 케이프투자증권, Clarkson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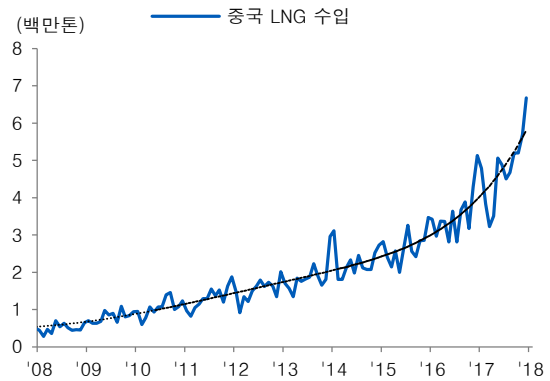
현재까지 조선업체가 수주했다 알려진 물량만 42억 달러

그림5. 2018년 1월 선종 별 발주물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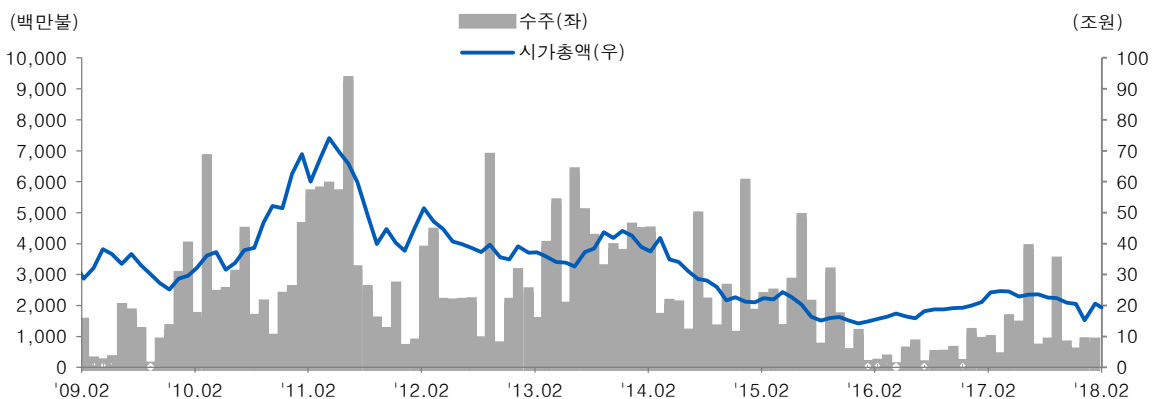
자료: 케이프투자증권, Clarkson Research

그림6. 중국 LNG 수입물량 추이



자료: 케이프투자증권, Clarkson Research

그림7. 한국 조선섹터 수주-시가총액 비교: 조선주 기업가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주상황



자료: 케이프투자증권, Quantiwise, Clarkson Research

표1. 2018년 조선섹터 주요 수주소식 요약 (2018.01.01~2018.02.21)

현대중공업(15척, 18.8억 달러)	Vitol(VLGC 2척, 1.5억 달러), Trafigura(VLGC 2척, 1.4억 달러), KOTC(VLGC 3척, 2.2억 달러), TMS Cardiff Gas(LNG선 3척, 5억 달러), Steelhead(ASLNG Hull 2기, 5억 달러), NYK Line(LNG선 1척, 2억 달러), H-Line(VLCC 2척, 1.7억 달러)
삼성중공업(10척, 11.5억 달러)	Flex LNG(LNG선 1척, 2억 달러), Gaslog(LNG선 1척, 2억 달러), Evergreen Marine(컨테이너선 8척, 7.5억 달러)
현대미포조선(7척, 2.7억 달러)	DSD Shipping(MR탱커 2척, 0.6억 달러), Evangelos Pistiolis(MR탱커 1척, 0.3억 달러), Marininvest(MR탱커 4척, 1.8억 달러)
대우조선해양(4척, 7.6억 달러)	Flex LNG(LNG선 2척, 3.9억 달러), 미확인 선주(LNG선 2척, 3.7억 달러)
한진중공업(2척, 1.4억 달러)	Exmar(VLGC 2척, 1.4억 달러)
합계	총 38척, 42억 달러 (2017년 한국 조선산업 수주총액 대비 21%) (LNG선 10척, VLGC 9척, ASLNG 2기, 컨테이너 8척, VLCC 2척, MR탱커 7척)

자료: 케이프투자증권, 언론자료

현재까지 조선업체가 수주했다 알려진 물량만 42억 달러

Compliance

- 동 자료에 제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공표일 현재 상기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아닙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는 공표일 기준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